

## 12/7(수) 시편(4 권) 묵상 10

### 시편 98: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온 땅에 있는 천하만민에게도 찬양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 하나님의 구원

본문 1절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의 구원사와 미래의 구원사를 모두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이를 '새 노래'가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특이한 표현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 '그의 구원', '그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사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엡 1:4-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친히 택하신 자들로 그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교에는 주가 친히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회심과 변화는 주가 행하시는 기이한 역사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한 영혼이 죽기까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부 예정론을 비판하는 자들의 주장과 같이 결코 무정하거나 잔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자와 성실을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가 단지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땅끝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 아닐까 묵상합니다(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핑계되거나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의와 공평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고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시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마 9:13하, “..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눅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의 목적을 따라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전도와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의 대표적인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와 선교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게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닦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치안주르 지역에서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지진이 발생해 최소 16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지역의 빠른 복귀와 이재민들의 도움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햄튼 2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카자흐스탄 이드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